7강 근대와 민족문학 글쓰기론

(1교시)

◆ 훼손된 근대를 드러내는 소설

※ 학습목표
근대 소설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이해한다

▲ 신이 부재하는 근대
근대가 시작되기 전의 시대는 창공의 별이 유토피아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시대였다. 이것이 그리스시대이다. 따라서 그리스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이 없었다. 낯선 곳이 없는 세계, 즉 인간이 당당히 주인일 수 있는 세계가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이다. 그리스 영웅들의 죽음과 삶은 두려움이 없는 세계였다. 그리스 시대가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이 지상에 내려와 인류와 더불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신이 지상을 떠나버리고 세상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근대이다. 따라서 근대와 함께 탄생한 소설의 주인공은 문제적 개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적 개인은 인류사를 끌고 나간다. 그런데 왜 문제적 개인이 되었는가.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에서 나오는 "I go to prove myself."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은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답을 주지 않는다. 본래적 가치가 사라지고 상품이 주인이 된 시대가 근대이기 때문이다. 이때 소설은 시간과 더불어 탄생한다.

▲ 지라르의 소설 이론
이전의 소설을 모방한 것 외에는 절대로 소설이 될 수 없다.『돈키호테』가 진짜 소설이자 소설의 처음인 것은 중세의 기사담을 모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중세의 기사담을 통해 소설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지라르는 『보바리 부인』에서 보바리 부인의 욕망은 진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모방된 욕망이라고 이야기한다. 자본주의 시대 인간의 욕망은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다.

▲ 골드만
책상을 한 사람이 든 것은 그 사람의 개인사밖에 되지 않는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었을 때에야 집단 안에서 여러 사람의 공통분모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골드만 이론의 근거이다. 따라서 골드만은 작품의 최종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 사람은 벌레가 아니다
망상(유토피아)을 버리고 인간은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다. 문학은 소설이며 인류사의 문제를 다룬다. 그렇다면 한국근대문학은 어떠했는가? "사람은 벌레가 아니다."라는 것이 한국문학의 명제였다. 한국근대문학을 쓴 작가들은 "사람은 벌레가 아니다."라며 민족과 국가를 내세웠다. 소월의 시에서 느껴지는 상실감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국가를 잃은 상황에서 민족주의적이지 않은 소설은 거의 없었다. 국권 상실의 상황에서 작가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품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7강 근대와 민족문학 글쓰기론

(2교시)

◆ 민족문학 글쓰기론

※ 학습목표
45년과 48년 사이의 민족문학 글쓰기론을 이해한다

▶ 사회 역사적 상상력에서 생물학적 상상력으로
양극체제의 붕괴, 소련의 해체 그리고 동구권의 몰락 이후 한국문학은 어떻게 변했는가. 한국문학은 1994년 윤대녕의 『은어 낚시 통신』을 통해 '인간은 벌레가 아니다'에서 '인간은 벌레이다'로 명제가 바뀌게 된다. 사회 역사적 상상력에서 생물학적 상상력으로 바뀐 것이다. 가치의 서열이 작동하는 가치의 원근법이 사라지고, DNA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 민족문학 글쓰기론
45년 8월 15일과 48년 8월 사이 공간에서의 글쓰기는 민족문학 글쓰기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45년 이전에는 나라 찾기였다면 해방 직후에는 나라 만들기로 방향이 바뀌게 된다. 조선총독 통치부는 모든 통치권을 소련 군정 혹은 미군정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정권을 이양 받을 수 있는 권력도 자격도 없었기에 방법은 독립전쟁 뿐이었다.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이 패전되면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나오게 되고 일정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 시키기로 한다.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독립을 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이 있는 그룹 중 하나가 임시정부였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사로운 단체였다. 한편 무력투쟁을 한 유일한 단체인 조선독립동맹이 있었다. 또한 여윤영의 건국동맹이라는 체육단체가 있었고 김일성 부대가 있었다.

▶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모델들
이 네 가지 단체 모두 정권을 인수할 수 있는 체계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모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과 소련은 정권을 쉽게 넘길 수 없었다. 결국은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모델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부르주아 단독 독재 정부
2)노동자 단독 독재 정부
3)연합 독재 정부
1)은 대한민국의 2)는 북노당의 3)은 남노당의 이념이자 모델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민족문학론이라는 것이다. 조선공산당은 1925년에 만들어지고 28년에 해체된다. 그리고 잠시 잠복상태에 있다가 해방이 되어 표면에 나오게 된다. 조선공산당이 해방이 되고 나서 세운 깃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공산주의를 행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